

# 무주산골영화제, 안전하게 즐긴다

시설·전기·가스·소방·교통 등 전방위 안전 확보... 분야별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무주군이 오는 6월 6일부터 8일까지 무주읍 예체문화관 일대 및 덕유산국립공원 대집회장 등지에서 개최 예정인 제13회 무주산골영화제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무주군은 영화제 기간 관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관리 조치, △응급 지원, △인명피해 시 조치 사항, △교통안전 관리 등 분야별 종합계획을 수립했으며 무주산골영화제 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요원(112명)을 주요 행사장 및 시설, 셔틀버스 등 총 15곳에 배치해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에 주력한다.

특히 화재 발생과 환자 발생, 관객 집중, 거동 수상자 발생에 대비한 상황별 조치 계획을 마련하고 무주소방서, 무주경찰서 등 안전관리기관과 협조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예체문화관 광장에 안내데스크를, 지하 1층 무주산골영화제 사무국 내에는 합동 상황실을 설치해 현장 상황에 즉시 대처할 계획이다.

주요 행사 시설 설치가 마무리되는 6월 5일에는 집중 안전 점검이 진행된다. 이날 점검에는 황인홍 무주군수를 비롯해 무주소방서와 무주경찰서 그리고 전기, 가스 등 분야별 전문가 등 총 17명이 동참할 예정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지나해만 3만 5천여 명



무주군이 오는 6월 6일부터 8일까지 무주읍 예체문화관 일대 및 덕유산국립공원 대집회장 등지에서 개최 예정인 제13회 무주산골영화제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 찾아주셨고 올해도 역시 많은 분이 오실 거라고 예상한다"라며 "사전 점검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즉시 조치해 안전하게 즐기고 모두가 만족하는 무주산골영화제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재난 등에도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13회 무주산골영화제는 6월 6일부터

8일까지 무주군 일원에서 개최되며, 영화 상영을 비롯해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된다.

3일간 18개국 86편의 영화와 관객과의 대화(18회), 공연·토크·이벤트(15회), 체험·전시 프로그램 등이 개최될 예정이다. 행사장에는 간식 부스를 비롯해 데일리 팝업, 브랜드 팝업, 홍보 부스 등 시설이 마련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 마당창극 '오! 난 토끼 아니오.'

전주한벽문화관, 14일 전주브랜드공연 열네 번째 시즌 개막

수궁가를 모티브로 한 '오! 난 토끼 아니오.' 마당창극이 열네 번째 시즌의 문을 연다.

전주한벽문화관이 주관하는 2025년 전주브랜드공연(마당창극)이 오는 14일 첫 공연의 막을 올린다.

이에 따르면 올해 무대에 오르는 작품은 '오! 난 토끼 아니오.'로, 2021년 초연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의 여파로 관객과의 만남이 제한됐던 아쉬움을 딛고 다시 관객을 찾는다. 이 작품은 전통 판소리 수궁가를 현대적 감각과 풍자적 시선으로 재해석해 관객들에게 신선한 웃음과 감동을 동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공연에 앞서 지난 5월 30일 전주한벽문화관 한벽공연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는 연출가 정호봉, 안무가 김봉순, 주인공 토끼 역을 맡은 배우 추현종씨가 참석해 작품에 대한 기대와 각오를 전했다.

정호봉 연출은 "전통적인 이야기인 수궁가를 현대적 정서에 맞게 각색해,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었다"며 "관객이 작품의 주제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스토리와 연출에 많은 고민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번 마당창극은 흥겨운 음악과 유쾌한 연기, 생동감 넘치는 야외무대 연출이 어우러져 전통극의 매력을 극대화했다.

2025년 전주브랜드공연 '오! 난 토끼 아니



오.'는 6월 14일부터 10월 18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15회에 걸쳐 진행된다. 다만, 7월 26일~8월 9일과 10월 4일은 휴식기 및 기후 상황으로 인해 공연이 열리지 않는다.

전석 1만5,000원의 입장료로 전 연령이 관람 가능하며, 티켓은 인터파크, 티켓링크, 네이버 예약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전북자치도민과 전주시민에게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추가 할인 정보는 전주문화재단과 전주한벽문화관 누리집, 또는 전화 문의(063-280-7008)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은성 기자

# 장수군, 꿈의 오케스트라 합동 공연 '바라봄' 성료

장수군은 2025년 꿈의 오케스트라 꿈의 향연 찾아가는 음악회 '바라봄'이 지난달 29일 장계초등학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날 공연에는 최훈식 군수, 추영근 교육장을 비롯한 지역 주요 인사와 주민, 학부모 등이 참석해 장수군 청소년들의 음악적 성장을 함께 축하했다.

이번 무대는 염소미 음악감독의 지휘 아래, 장수군 빛나는 오케스트라 단원 37명 등이 참

여했으며 △작은 별 변주곡 △학교 가는 길 △사운드 오브 뮤직 등 다채로운 음악 세계를 펼쳤다.

본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및 장수문화원 주관, 장수군과 장계초등학교가 후원한 꿈의 오케스트라 15주년 기념행사로 지역 내 오케스트라 가지는 교육적·문화적 가치를 조명하고 음악을 통해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됐다.



한편 장수문화원은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오케스트라 단원을 상시 모집 중이며, 공연 영상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유튜브 등에서 시청할 수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전북문화관광재단, 일본 관광객 유치 '지역특화음식 캠페인' 시작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일본 관광객 유치 '지역특화음식 캠페인'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한국관광공사 주관하고 재단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일본인 관광객에게 지역의 고유한 맛과 개성을 알리고, 이를 통해 지역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다.

캠페인 테마는 지역 대표 음식인 '전주 막걸리'다. 캠페인에 참여하는 일본인 관광객은 특별히 구성된 막걸리 정식 1인상(3만 원)을 전

통적인 분위기의 전주 식당에서 즐길 수 있으며, 총 11개 업체가 참여한다.

참가자들에게는 막걸리를 직접 만들어볼 수 있는 '가투막걸리 키트'를 기념품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재단은 일본 현지 관광상품화를 위한 캠페인을 오는 7월 중 추진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관광마케팅팀(063-230-7480, 7485)에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 전북문화관광재단, '함께하는 예술기행' 1차 참가자 모집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 예술인복지증진센터는 도내 예술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2025 함께하는 예술기행' 1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예술인들이 우수 예술 콘텐츠를 직접 경험함으로써 창작 활동에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도록 기획됐다.

모집은 2일부터 30명 선착순이며, 접수는 이

메일(jbart2024@hanmail.net)을 통해 가능하다.

지원 자격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이다. 다만, 2024년도 '함께하는 예술기행'에 참여한 예술인은 신청이 제한된다.

신청된 예술인은 오는 2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을 방문해 '뮤지컬 팬텀'과 '본 무의 개인전'을 관람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 전주문화재단, '한지골 단오맛이 접선 만들기' 체험 행사 열려

단오를 맞아 천년한지관에서 한지골 접선 만들기 행사를 선보였다.

전주문화재단이 주최·주관한 '2025 한지골 단오맛이 접선 만들기' 체험 행사가 지난달 30일 전주 한지골에서 시민과 관광객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올해는 휴대성과 실용성은 물론 섬세한 아름다움을 지닌 전통 부채 '접선(摺扇, 접는부

채)' 만들기를 주제로 삼아, 참가자들에게 더욱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된 체험 행사에서 참가자들은 전주 한지의 우수성을 직접 느끼며 자신만의 접선을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한지를 이용해 접선의 살을 붙이고, 재단 후 꾸미는 과정을 체험하며 부채 제작의 전통 기법을 배우는 소중한 기회였다. /정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 옛 전북의 구심점

###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관풍각

내아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 터의 중층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